

4월 다섯째 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요

■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7~10절 (4월 29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요.

≡ 1. 찬양

(새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2. 기도

저희 삶의 시작과 목적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사무엘하 12장 7~10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말성경>

7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8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고 네 주인의 아내들도 네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네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와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헷 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10 그러니 그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단어 설명>

\*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김

## ≡ 본문 이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정터에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이 지은 죄를 엄하게 다루셨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할 때였어요.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어요. 그때 다윗은 암몬과 싸우러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어떤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서 단 한 마리뿐인 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존경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지요. 만약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예요(8절). 하나님은 다른 이의 것을 탐내고 빼앗은 다윗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시며,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지은 죄의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행한 악한 일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는 강간과 살인 그리고 다윗 왕권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다윗의 아들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야가 칼로 죽임을 당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 삶에 쉽게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죄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악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 ≡ 4. 나눔

1)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밋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9절)

### ■ 저학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며, 다윗이 이처럼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나요?(9절)

### ■ 유아, 유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나요?(9절)

### ▶질문 가이드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사울과 달리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음욕을 품었어요. 다윗은 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권위를 사용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9절),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10절) 말씀하셨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행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회개했어요.

2) 죄는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시작되어 결국 삶을 무너뜨려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평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나누어 보세요.

## ■ 저학년

나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 또는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 ■ 유아, 유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질문 가이드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유혹(생각, 습관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죄의 유혹을 이겨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던 경험을 나누어도 좋아요. 가족이 함께 이러한 영적 공격을 이겨 낼 전략을 세워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벧전 5:8). 죄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틈을 타고 들어와 교묘하게 무너뜨리기에 누구나 죄의 유혹에 이끌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죄짓게 하는 자리를 분별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 5. 감사하기

최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해 보세요.

## 6. 기도

하나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세요.

## 7. 가족 미션

<서로 QT 점검해 주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 QT한 내용을 가족이 서로 확인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세요.